

### 목회의 프락



이동균 목사  
해성교회 담임

자연의 절기는 소만(小滿)을 지난다. 소만은 말 그대로 작은 충만을 뜻한다. 산하는 가장 푸른 시절로 들어가고, 보리는 누렇게 익어지며, 어린 벼 모들은 눈마다 채워져 좋다는 느낌을 준다. 자연은 아직 완전한 결실에 이르지 않았으나 이미 충만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생명은 성장하고, 세상도 조금씩 가득 차 간다.

교회 역시 부활절기를 지나 성령강림절로 들어간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지나, 교회는 성령의 충만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성령강림절은 단순한 교회 절기가 아니라, 두려움과 분열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명과 용기를 얻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자연이 소만을 지나 충만으로 향하듯, 교회도 성령의 충만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성령

다. 세대 간의 단절도 심각하다.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절망과 불안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 학벌과 직업, 경제적 배경 역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 서로 다른 생각과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보다 혐오와 배제를 먼저 선택하기도 한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포퓰리즘 역시 이런 분위기의 흐름을 감화시키고 있다. 지구 우선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한다. 자기 집단의 불안과 분노를 정치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고, 이민자와 약자,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오리엔탈리즘적 시선도 여전히 작동한다. 특정 지역과 문화를 뒤쳐진 존재로 규정하거나, 서구적 가치와 질서만을 문명의 기준처럼 여기는 태도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킨다. 반대로 어떤 사회에서는 자기 민족과 국가만을 절대화하며 폐쇄적 우월감 속으로 들어가지도 한다. 극단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우월감은 결국 서로를 적대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령의 언어는 다르다. 성령은 바벨탑의 언어처럼 인간을 흠여지게 하지 않는다. 오순절의 성령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언어만 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인정하면서도 소통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순절은 화해의 사건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사건이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 성령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 입자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놀라며 말한다.

"보십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이 말은 단순한 놀라움의 표현이 아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이 담겨 있다. 갈릴리는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이 아니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다. 갈릴리는 변방이었고, 세련된 언어와 학문을 가진 중심부 사람들에게는 낮은 평가되던 지역이었다. 갈릴리 사람들은 종종 배움이 부족하고 촌스럽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다. 성령은 인간 사회의 중심과 변방을 구별하지 않는다. 성령은 학벌과 신분, 경제적 격차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성령은 특정 계층의 독점물이 아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공동체 안에 남성과 여성, 젊은 이와 늙은이가 함께 있었음을 보여준다. 베드로 역시 요엘서를 인용하며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성령은 인간이 만든 경계와 서열을 넘어 역사하신다.

오늘의 사회 역시 수많은 차별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지역갈등의 상처를 경험해 왔다. 선거철이 되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언어가 반복되고,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 정치적 자산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경제적 격차와 문화의 집중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강화시켰고, 지방은 끊임없이 소외감을 경험한

르게 허물고 있다. 실시간 번역과 디지털 소통은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강화하는 확증편향 속에 살아간다. 소통의 기술은 발전했지만 공감의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성령의 소통 능력이다. 성령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동일하게 만들지 않는다.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든다. 성령은 혐오의 언어를 공감의 언어로 바꾸고, 배제의 논리를 환대의 질서로 변화시킨다.

성령강림절 이후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교회는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특정 집단의 우월감을 강화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역과 세대, 학벌과 성별, 신분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윤리가 아니라 성령론의 본질이다.

성령은 차별하지 않는다. 변방의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우시며,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일으키신다. 오늘의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면, 먼저 우리의 편견과 우월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며, 갈라진 세상을 이어가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

성령강림절은 단순히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임하시고, 지상교회가 태어났으며, 선교가 시작된 날이다. 또한 갈라진 언어와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화해와 통일의 날이다. 그러므로 성령강림절은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넘어, 소통과 공감의 언어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주의 추천도서



### AI 시대, 교회학교가 답이다

교회학교에서 만들어지는 AI 시대 역량 13가지

"AI는 시뮬레이션은 할 수 있지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시가 할 수 없는 '성품과 역량' 훈련의 현장. 시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시를 다루는 '성품과 역량'을 가르치라!

13가지 '성품과 역량' 훈련으로 다음 세대 바로 세우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다루는 성품의 깊이입니다." 이 문장은 저자가 왜 오늘 다시 교회학교를 말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저자는 청소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답을 성경적 인간 이해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찾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신선함이며 힘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교회학교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저자는 교회학

교에서의 훈련과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이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이를 13가지 역량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선생님을 위한 나눔 가이드'와 '부모님을 위한 나눔 가이드'는 이런 역량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학교나 가정에서 꼭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 프롤로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추적 연구인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놀라운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의 행복도, 건강, 직업적 성취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지능이나 학업 성취가 아니라, 유년기에 경험한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 중 하나가 교회학교입니다. 사실 교회학교는 거대한 '성품 조각실'입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시대에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다루는 성품의 깊이입니다.

### 책읽기 살림이



오스 기너스 지음/홍영동 번역/아리바람 펴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대처 상황만큼이나 치열한 대결이 국내에서도 펼쳐졌다. 6.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과정과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는 또 한번 큰 변곡의 순간을 지나왔다. 세상의 정치가 삶의 환경을 결정하기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종교와의 관계 설정이 잘못된 순간 두 분야가 다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은 순간에 적절한 책 한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와 종교, 그 위험한 관계에 대하여"는 오스 기너스의 저작이다. 저자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강연가, 작가, 사회비평가다. 허드슨 테일러의 동역자로 영국에 남아 중국내지선교회를 후원한 헨리 기너스의 증손자로,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에서 의료선 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1951년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따라 추방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수학한 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위스 라브리에서 프란시스 슈퍼와 함께 사역하기도 했다. 1984년 이후 미국에 체류하면서 현대

기독교와 문화를 분석하고 공공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으며, 프란시스 슈퍼의 사상을 계승한 최고의 문화비평가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의 관점의 출발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로부터 시작한다. 1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가 국민의 신앙, 생각, 말, 언론, 평화적 모임, 정부 비판과 요구를 합부로 막지 못한다" 것이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가장 정교한 설계도라고 저자는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종교 전쟁으로 인한 갈등을 넘어 생각이 다른 집단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고민하여 만들어 낸 종교개혁의 마침표이다.

것이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보분리가 종교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모두의 양심을 보호하는 공존의 울타리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강한 확신은 더 거칠게 말하는 이유가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하는 이유여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비단 미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무제한 전도나 독선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좀 더 품격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진리

### 정치와 종교, 그 위험한 관계에 대하여

물론,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이것이 있어야만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창의성의 영감인데 강요가 아닌 설득과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경쟁 시스템이 미국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에서 출발한 미국 사회는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극단적인 문화전쟁을 피하고, 세계주의적이고 시민적인 공적 공간을 회복하고, 우리 시대에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위해 일하고, 우리의 깊은 차이점과 더불어 사는 법과 관련해 세계의 모델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지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론은 시민 교양을 가지고 있는 품격 있는 기독교인이 꼭 고민해야 하는 시정인 것이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기독교가 아닌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따르게 하는 소통의 장을 넓혀가는 것이 이 책을 읽으며 머릿속을 스쳐가는 감명찬 생각이



김병모  
한국실로알선교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최고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과정	모집학과	학제	모집인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30명	고졸, 세례받은 자 전문대졸자는 3학년 편입가능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20명	세례받은 자, 평신도, 사명자
신학연구원	신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신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학술원	성경심화과정	2년	00명	목회자, 신대원 졸업자
평신도 성경연구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체계화함, 4학기(1년) 평신도 지도자 과정 후 신학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음			
특전	신대원 졸업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유제도 있음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